

더불어 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5. 3. 27.(목)
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 (02-784-5891)	담당자	사무국장 박혜민 (02-6788-7416)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함께 경북 산불 현장 방문**

- 한병도 위원장, “조속한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간사, 문대림 의원,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경북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 지난 21일 영남권 일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후, 27일 오전 6시까지 사망자 26명, 산림면적 3만6,009ha 등 대규모 피해를 기록 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돌풍으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불 영향 구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진화가 더딘 상황이다.
- 26일, 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함께 안동시민운동장에 마련된 현장 지휘소를 찾아 권기창 안동시장으로부터 산불 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안동시 내 피해 규모가 큰 임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화마가 휩쓸고 간 참혹한 산불 피해를 직접 확인했다.

-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시설로 이동해 이재민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한 위원장은 피해자에 위로를 건네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을 약속했다.
- 27일에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천년고찰 고운사에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등운스님 등 사찰 관계자에 위로를 전했다. 이후 의성시 점곡체육회관 이재민 대피소와 점곡면 피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이재민 불편 사항 점검 및 신속한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족,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속한 진화에 나서주길 바라며, 민주당도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무엇보다 피해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과 주거 대책 등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경북 산불현장 점검 사진





안동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시설



고운사 방문



점곡체육회관 이재민 대피소